

통권  
261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6 2021

# 늘푸른물결



##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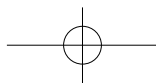
지난 5월 29일 당진시민분들과 함께 도비도 바닷가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부표나 해양 쓰레기들이 많아 봉사자들이 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보람된 활동을 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과 당진환경연합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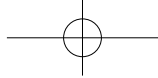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자연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 차 례



당진환경운동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 개최



불법 방치 산업 폐기물 근절? 우리 눈엔 그저 '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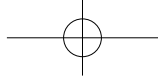


신서천 화력에서 서천군청까지 도보행진

- ▶ 발행일 2021. 6.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 1 1면
- 2 글 쓰는 순서
- 3 이달의 시  
| 열두 개의 그네의자 중 / 강형철
-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환경운동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 개최
- 6 지역환경초점2  
| 불법 방치 산업 폐기물 근절? 우리 눈엔 그저 '악법'
- 8 지역환경초점3  
| 신서천 화력에서 서천군청까지 도보행진
- 10 지역환경단신1  
| "양승조 지사 서산 민항 예타면제 요구, 탄소중립 역행"
- 11 지역환경단신2  
| 환경연합,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 2차 전국 행동
- 12 전국환경초점1  
| P4G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 14 전국환경초점2  
| 무차별 벌목 지적에 한발 물러선 산림청
- 15 전국환경초점3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 "진상조사 끝나지 않아"
- 16 석탄씨를 구해줘  
| 10화 누구나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다.
- 18 5월 살림살이
- 19 6월 주요사업 계획
- 20 5월 활동소식
- 22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3 참여바랍니다.
- 24 참여바랍니다.





# 열두 개의 그네의자 중

강형철

할머니 한 그네의자에 앉아  
발 뻗어 허공을 차네  
마스크 쓰고

건너편 옛 장항제련소 굴뚝을 향하는지  
개펄이 만든 금란도를 향하는지

오른쪽 발가락에 힘을 주네  
발가락이 꿈지락대고 신발이 하늘로 올라가네

삽상한 바람 맞으며  
머잖아 떠날 지구와 노니는가?

할머니 발이 닿은 허공 저편  
그 위에 얹힌 가득한 생애

그네의자 위에서 바람에 열쿨 젖으며  
먼 하늘 마음껏 나네

주름지며 흐르는 세월  
자갈하거 뒤척이며

금강 연변 살림살이  
따라  
반짝거리네

오랜만에 볼 붉은  
여인이 되어



## 강형철

시인, 문학평론가. 시집으로 <야트막한 사랑>, <해망동 일기> 등이 있다.



# 당진환경운동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 개최

29일 도비도 시작으로 석문호, 삼교호 등에서 플로깅 행사 진행 예정



플로깅에 참여한 시민들이 도비도 주변 방조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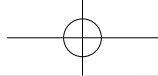
“내 방을 치우는 건 아니지만 바닷가의 쓰레기를 줍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더 좋구요 다음에도 또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나와서 청소하려고요”-신평중 2학년 김현서

지속가능상생재단의 후원을 받아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달 29일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을 진행했다.

박은정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은 “도비도 제방 구간의 절반만 청소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보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70개의 마대를 준비했는데 절반 50개 이상의 마대가 가득 찼다”라고 말했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왔음에도 이날 참가자들은 활동은 열기를 띠었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사전 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플로깅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는 참여자들이 보이는 곳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쓰레기까지 다 꺼집어 낸 열의 덕분”이라면서 “일정이 늦어지긴 했지만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도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다.



이날 현수막 마대 50여개에 쓰레기를 담아 냈다.

신평중 김현서 군과, 신평초 김현민, 김현이 3남매를 모두 데리고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김정아 (43) 씨는 “아이들 모두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그런데 귀찮아하던 아이들이 쓰레기가 많은 바닷가를 보더니 열심히 청소했다. 고마울 정도”라면서 “집에서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도비도를 시작으로 6월 26일, 8월 28일, 9월 25일 석문호 주변, 삽교호 주변, 왜곡마을 주변 등에서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말로 이삭을 줍다는 뜻인 'locka upp(pick up)'과 조깅이라 합쳐진 단어다. 특히 플로깅이 처음 시작된 스웨덴에서는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새로운 놀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플로깅이 확산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출처: 당진신문]



5월 20일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불법방치산업폐기물 근절? 우리 눈엔 그저 '악법'



5월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산업 폐기물 업계 이익 대변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모습.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산업 폐기물 업계 이익 대변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환경단체 시선에선 '악법'으로 보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등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촉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라면서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활동가들은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해결책도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는 건 민간 폐



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보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뉴스 클레임]

## 산폐장 관리 위한 공론화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안전관리 강화 및 주민과 소통창구 역할

산업폐기물처리장 관리를 위해 당진시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당진시는 지난 28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위촉식을 열고 갈등관리전문가, 시민단체, 산폐장 운영업체, 시의원, 공무원 등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가 맡았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는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폐장이 건립되는 것과 관련해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 환경 보호대책 강구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에 대한 감시 방안 마련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 조정 및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태순 위원장은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평등하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당진시대 일부 발췌]

## 어기구 국회의원, 폐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산업폐기물의 영업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명 폐축법) 개정안을 5월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축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외부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번 폐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글:사무국]



#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서천군청까지 도보행진

## 탈석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기후위기 충남행동·서천 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



신규 석탄화력 발전 중단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진행된 도보행진. 도보행진단 뒤로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가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서천 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원회가 탈석탄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도보행진을 펼쳤다.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서천 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2021 충남 신규 석탄화력 발전 중단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신서천화력발전소 앞에서 출발해 서천군청까지 행진했다.

서천군청 앞에 도착한 이들은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도보행진 공동 캠페인은 전국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함께했다.

또한, 이번 도보행진에는 충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과 양금봉 도의원이 같이 참여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황성렬 공동대표는 "5월 30일과 31일 P4G 회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12개 중견 국가 중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가장 저조하다. OECD 소속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





도보행진에 앞서 신서천화력발전소 앞에서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보행진을 마치고 서천군청 앞에서 퍼포먼스로 발전소 모형과 송전탑 모형을 쓰러트리는 장면

년까지 중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7기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30일~31일 양일간 개최하는 P4G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2030년 전에 모든 석탄화력발전 중단할 것과 신규 건설, 가동을 앞둔 7기의 석탄발전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프레시안]



# "양승조 지사 서산 민항 예타면제 요구, 탄소중립 역행"

## 기후위기 충남행동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지난 5월 11일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충남도청 앞에서 개최한 서산민항 반대 기자회견에서 황성렬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기후위기충남행동(아래 충남행동)은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추진은 충남도가 선언한 탄소중립 이행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충남도지사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양승조 지사는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행사에 참석해 오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해 충남행동은 "충남은 (지난 2019년) 정부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올 2월 '정의로운 전환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군비행장 민항시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은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민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충남행동은 또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 제철소 등으로 인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1%를 차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실천 없이 말로만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공군과는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논의가 된 상태이다"라면서 "공항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출처: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연합,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 2차 전국 행동



지난 5월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공동행동에 맞추어 당진에서도 구터미널에서 1인시위를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이 5월 1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2차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1인시위로 전국 공동행동에 함께 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를 위한 2차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2차 전국 행동은 당진을 비롯해 서울, 광주, 수원 등 전국의 18곳에서 행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었다.

[출처:환경연합 홈페이지 일부 수정]



# P4G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한국 정부 먼저 2030 배출절반, 2030 탈석탄 선언해야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 ‘지속가능 물 관리’ 모두 모순적이거나 공허한 선언 뿐



5월 30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동대문 DDP까지 진행된 도보행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P4G)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P4G에 참여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공동으로 “서울 선언”이 발표되었다.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다. 어떤 실천 없이 말잔치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또 시민들의 몫인가.

한국정부는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 “서울 선언”에서는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고, 여타 국가들의 조속한 상향을 독려했다. 그러나 선언의 주체인 한국이야말로 야심찬 NDC 상향을 발표해야 하는 처지다. 다른 국가를 독려했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 절반 수준의 2030 NDC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 선언이 강조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역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가깝다. 한국은 여전히 과학적 분석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른 ‘2030 탈석탄’에 기반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하다. 개최국부터가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서울 선언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이와 정확히



동대문 DDP에서 진행된 P4G 규탄 기자회견

상반된다.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떨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또한 그 내용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마찬가지이다. 4대강 유역의 녹조문제로 인해 깨끗하지 못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벌써 수년째다.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확보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해야 할 때이다. 4대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마다 불거지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방안,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사회의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개편 없이 '순환 경제'는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선언에서 실체가 모호한 '순환 경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되풀이할 바에는, 국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실체가 육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이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국제적 행동규범 없이 나온 '국제적 결속'은 수사에 불과하다. 더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며,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전환 없이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함을 경고한다.

이밖에도 서울선언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실은 전혀 이 선언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P4G 개최 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공정전환' 분과가 있음에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등 전환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P4G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전국적 '기후행동'을 벌였으나 이 요구는 모두 묵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 기후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허한 선언은 "서울 선언"으로 끝나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당장 시작하라.

2021.5.31. 환경운동연합



# 무차별 벌목 지적에 한발 물러선 산림청

## 산림탄소중립전략안, 민-관협의체 구성 등 절충안 제안

최근 무차별 벌목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던 산림청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산림탄소중립전략안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벌목 논쟁을 일단 중단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6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관련해 우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쟁점사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의체에서 합의사항이 나오면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간 주요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의 목재수확(벌채) 방식과 벌기령(목재수확이 가능한 나무연령) 단축, 목재자원(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이용 비중 과다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산림청은 여러 차례 설명자료를 내고, 이후 최병암 산림청장까지 나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이 브리핑에서 최 청장은 목재수확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지적된 국내 벌채에 관해서도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과는 무관한 산림경영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의 해명 이후에도 환경단체의 규탄이 그치지 않자 산림청은 전문가를 통한 정책의 객관적 검증과 진행으로 방향을 돌렸다.

2일에는 협의체의 본격적인 구성에 앞서 사전 논의를 위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주요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도 했다.

또 산림청은 주요 환경단체 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 3자를 통한 갈등조정 방안에도 검토 중이다.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회의를 이달 내 가질 예정이다.

[출처 : 아주경제 일부 발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진상조사 끝나지 않아"

1일 국회 앞 기자회견, 민주당·한정애 환경장관 성토



6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숨을 못 쉬는 고통을 아십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갈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

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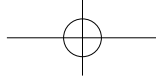
이날 피해자들의 성토는 한정애 장관을 향해 쏟아졌다. 한 장관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는 끝났다"라고 말했다. 당시 한 장관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능은 삭제됐다"라며 "다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조사는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조사보다는 피해자 구제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자신과 가족들이 중증천식에 걸린 김선미씨는 "가습기살균제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특조위를 활동을 제재하고 있다"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급을 판정하며 피해자를 돕는 기관을 일할 수 없도록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아내를 잃은 김태중씨는 "아내는 13년 동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고통까지 겪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며 "그런데 지금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 끝났다고 주장한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뉴스토마토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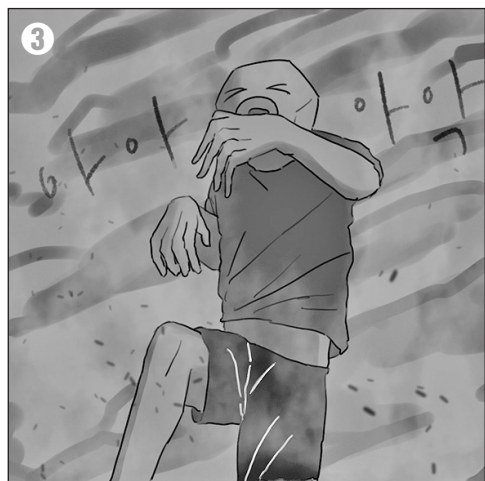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씨를 구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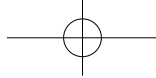
# 누구나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다.

10화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씨를  
구해줘

# 누구나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다.

10화





## 2021년 5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0일)

##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4월 이월금	17,664,399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6,015,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b>[항]집계</b>	<b>6,015,000</b>	
후원금	일반후원	70,00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0	후원금
	<b>[항]집계</b>	<b>70,000</b>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0	공모사업
	기타사업	33,000	기타사업 수입
	<b>[항]집계</b>	<b>33,000</b>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장기발전기금 전입
	<b>[항]집계</b>	<b>0</b>	
월수입 총액	계	6,118,000	
수입 총액	계	23,782,399	전월이월금 포함

## 지출액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419,49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502,96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223,0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b>[항]집계</b>	<b>1,145,450</b>	
인건비	급여	4,330,000	상근자 2인
	상여	1,082,50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42,330	
	<b>[항]집계</b>	<b>6,215,670</b>	
사업비	일반, 공모사업	1,286,58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 회원사업	798,27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 조사사업	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358,83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0	후원의밤
	<b>[항]집계</b>	<b>2,443,680</b>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100,000	장기발전기금
	<b>[항]집계</b>	<b>100,000</b>	
지출총액	계	9,904,800	

2021년 5월 잔액 13,877,599



# 01 일반사업

- ❖ 6/01(화)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 6/02(수) 10:30 가슴기 살균제 피해해결 촉구 기자회견 - 대전 이마트둔산점  
11:00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공동행동 - 구터미널 로터리  
12:00 산폐장 대응 전국 연대 간담회 -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 ❖ 6/03(목) 11:00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11:30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사무실  
14:3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 인선위 회의 - 아산YMCA
- ❖ 6/04(금) 14:00 당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준비 회의 - 사무실
- ❖ 6/05(토) 09:00 세계 환경의 날 당진지역 기념행사 - 남산공원
- ❖ 6/07(월) 10:00 통일쌀 공동모내기 연대사업 - 석문간척지  
14:00 기후위기 충남행동 확대운영위 - 온라인
- ❖ 6/08(화) 10:00 탄소중립 컨퍼런스 실무추진단 회의 - 충남지속협  
11:00 에코생협 운영위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18:30 6월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6/09(수) 10:3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 인선위 회의 - 아산YMCA
- ❖ 6/10(목) 13:30 당진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워크숍 - 고대공설운동장 스포츠센터  
16:00 충남환경운동연합 2차 운영위 회의 - 사무실
- ❖ 6/15(화) 10:00 충남도 노동정책추진단 회의 - 온양관광호텔
- ❖ 6/16(수) 1400 환경운동연합 탈석탄 전략회의 - 온라인
- ❖ 6/17(목) 11:00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강사단 강의 영상 촬영 - 미정
- ❖ 6/18(금) 15:00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 회의 - 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 ❖ 6/19(토) 16:00 기후위기 영상제 - 당진문화원 공연장
- ❖ 6/22(화) 14:00 당진환경운동연합 임시 총회 - 온라인
- ❖ 6/26(토) 09:00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 석문호 주변
- ❖ 6/30(수) 10:00 신서천화력 준공 규탄 행동 - 신서천화력  
15: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20주년 기념식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6/29(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 전국 탈석탄 배달부 선포식

5월 10일 탈석탄 배달부 선포식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진에서도 당진화력발전소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서산 민항 반대 기자회견

5월 11일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충남도청 앞에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서산 민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충남에너지전환 네트워크 회의

5월 18일 충남지속협에서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의를 가졌습니다.





## 인천 탈석탄 공동행동 참가

5월 20일 인천시청앞에서 진행된 탈석탄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조순형 충남환경연합 탈석탄팀장과 김정진사무국장, 박은정 사무차장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 에코생협 당진점 10주년 기념 할인 행사

5월 26일 에코생협 당진점이 10주년을 맞아 할인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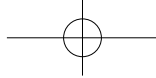
##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

5월 29일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으로 당진시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분들과 함께 도비도 주변 방조제에서 쓰레기 줍기 정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도연 강병수 강삼욱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중원 김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권기 김기권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옥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근 김정숙 김정순 김정은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대기 김필배 김하정 김한순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현자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성호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슬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영환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대식 박현순 박호완 박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방차욱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운경 백종렬 서동우 서지현 신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은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승보 심재권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동책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유경라 유미화 유성 유영석 유종준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범주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세봄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선 이정옥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호선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유영 정종한 정중섭 정지섭 정찬관 정치웅 정한영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행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차준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목  
최오상 최완택 최운연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허인욱 현민 호상기 호용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욱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귀염둥이아띠어린이집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 (주)  
해송



# 『기후위기 영상제 당진상영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깨어있는 시민"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 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상영회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이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큐멘터리】

전선을 따라서 이지현



### 【애니메이션】

석탄씨의 재생에너지 이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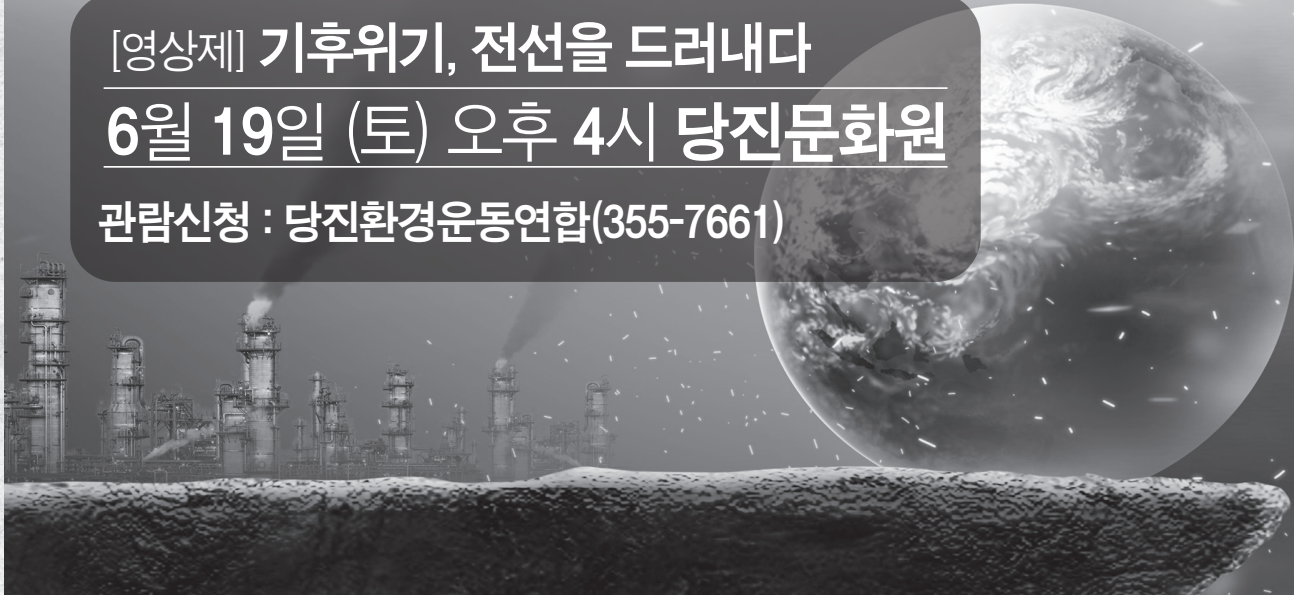
### 【단편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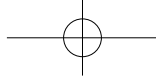
불가능한 미래 양시모  
우리를 찾지 마세요 이유진  
달 닦기 곽소진  
<기후시민3.5>아카이빙 3인칭시점

[영상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6월 19일 (토) 오후 4시 당진문화원

관람신청 : 당진환경운동연합(355-7661)





## [임시총회 소집 공고]

# 2021년 제1차 당진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정관 제10조 ②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6월 22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온라인 줌 회의 (문자로 링크 별도 발송)
- 안 건 : 1. 정관 개정의건  
2. 조직 위상 변경 및 이전 결정의건

##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

당진의 바다와 호수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정화 활동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자	장소	세부 내용
6월 26일(토)	석문호 주변	석문호 주변 쓰레기 청소
8월 28일(토)	삽교호 주변	삽교호 주변 쓰레기 청소
9월 25일(토)	해안가	해안가 쓰레기 청소

※ 일자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부계획

- 출발 장소 : 당진문예의 전당 / 오전9시
- 세부 일정
  - 09:00~09:30 플로깅 장소로 이동(버스)
  - 09:30~11:30 플로깅 진행
  - 11:30~12:00 도착
- 참가신청 : 선착순 35명(041-355-7661)
- 자원봉사 3시간 적용



### -알림-

'늘푸른 물결' 소식지를 종이 소식지 대신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회원님께서서는 이메일주소를 355-7661(문자가능)이나 전화주시면 우편 배송을 취소하고 매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으로 발간되었습니다.

